

청소년복지의 정체성 모색

노 혁*

오늘날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역할과 영향이 커지면서 청소년복지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의 복지적 접근방법이 보완되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특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변화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복지권 *welfare rights*을 신장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 존재로 인식하여 두가지 관점에서 복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사회·문화적 생활기회의 불균형을 방지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울러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와함께 현재와 미래 생활자립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강한 노동력의 보호 및 개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복지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I. 서 론

최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청소년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청소년을 이해했던 기존 시각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독자적인 복지대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두가지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하나는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이 주요한 사회세력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는 사회 상황적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1988년 당시 체육청소년부(현재 문화관광부)로 일원화되고,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보완되고 제정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 제도적 측면이다. 이같은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흐름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학과와 청소년복지학과를 대학과 대학원에 설치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과학분야의 관심도 높였다.

사회복지학계에서도 아동복지, 노인복지 등과 같이 복지대상별 부문에 청소년복지가 포함되어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 책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아동과 구분하여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독자적인 복지분야를 모색하고자하는 시도는 1987년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에서 그 시초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청소년육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전담 행정부서를 두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소년복지의 독자성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3대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복지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활동에 대한 의욕적인 정책과 비교할 때 청소년복지는 기존의 복지사업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평가된다.¹⁾ 이처럼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와 구분하여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책과 사업적 관점에서 청소년복지의 영역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청소년복지의 고유한 정체성을 뚜렷이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실제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의 내용을 통하여 아동복지와는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며, 청소년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의 모색과 연구는 여전히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청소년복지가 독자적인 분야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복지대상으로서 청소년이 아동이나 노인 등과 다른 접근방법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복지의 특성과 정체성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복지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복지적 대상으로서 청소년을 사회변화 속에서 복지권리와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와 구분되는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의 대상을 연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1) 김영모(1993),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p. 295.

II. 청소년복지의 독자성에 대한 근거

1. 아동과 다른 청소년의 특징

아동과 청소년은 활발한 성장과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발달심리적으로도 의존적 성향이 강한 아동기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보다도 격동적이고 많은 변화를 보여 아동을 보는 준거로서 청소년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아동에 대한 법적인 연령구분에서 본다면 유(乳)아기(만 1세까지) 유(幼)아기(만 1세에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소년기(취학의 시기에서 만 18세까지)로 구분되어 있다.²⁾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을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연령은 정치·사회적이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범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편적으로 아동은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층을 그 대상범위로 삼고,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학생연령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기준이라면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9세까지, 청소년은 10세 정도의 연령에서 18세까지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기 시작 연령층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아동후기와 청소년초기는 신체·심리·정서적으로 급격한 발달과 성격의 변화시기에 있기 때문에 개인차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특성을 함께 갖기 때문이다.

장인협은 아동의 특성을 미성숙한 상태, 의존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함께 충족되어야 할 존재, 민감하며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화되어가는 시기이며,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하는 때라고 하며, 이에 비해 청소년은 아동으로부터 성인으로의 육체적 성숙, 지적·정서적 발달과 함께 독립과 의존의 갈등, 자아정체성의 확립, 저항과 비판의식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한다.³⁾ 특히 사춘기는 신체·심리·정서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점으로

2) 장인협·오정수(1996),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 2.

3) 장인협·오정수(1996), 앞의 책, pp. 3-10.

이해된다. 사춘기의 특징은 신체적으로 생식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완성되며, 심리적으로는 성역할을 점차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는 정서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며,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게 되어, 아동의 행동양식과 성인으로서의 역할지위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보다 현실적인 이해의 예로 아동은 가정내에서 보호받고 활동한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부모와 함께 외출하기를 꺼려한다고 부모들이 서운해 한다. 그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자의식과 의미를 느끼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이전하는 징조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생활모습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기성세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 보호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어른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주어져 있는 반면 청소년은 보호받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다. 아동은 부수적인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 보호의 권리를 누리는 반면에 청소년은 일정한 사회적 책임이 주어진 보호를 누린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책임과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은 사회참여와 협력의 수준에서 정확히 파악되고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청소년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중심으로 한 복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동과는 달리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이며 사회에 대해 아동보다 실제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청소년은 독립된 하위 문화를 갖고 있으며 소비와 생산에 있어 아동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등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단계와는 다른 사회적 특성을 가진다.

2. 사회변화 및 청소년의 역할 변화

현대사회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역사적인 전환기에 돌입하였다. 이 시기에 나타난 격렬한 사회변동은 1970년대의 일시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체와 1980년대 전반의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개혁으로 이어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동구사회주의 체제와 소련사회의 붕괴로 인한 냉전구도의 종식 등으로 사회변화의 정점에 이른다. 그 후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의 우열이 평가되고 경쟁이 심화되며 민주적 사회를 향한 개혁요구가 활발히 분출하는 한편, 국가와 국민계층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에도 영향을 가져왔다.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도 각종의 사회보장제도가 축소되고 ‘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구호 아래 자립노력과 민간자원활용 등 복지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강조함으로써 국가보장적 복지사업이 퇴보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지원의 축소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경제적 경쟁력이 없는 계층과 대상을 사회적응에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에 비해 청소년들은 시기적 특성상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변화에 대응한다. 청소년은 무한경쟁과 철저한 시장경제논리에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지만, 청소년들이 일으킨 청소년문제는 사회문제화되고 소비등의 하위문화를 통하여 사회에 반향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Drury & Jamrozik의 연구⁴⁾에 의하면 청소년들에 관한 관심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소년들은 독특한 관심과 아울러 그들의 고유의 요구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집단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반응을 기대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다른 사회집단에 비교하여 취업, 주택, 수입 및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등 여러 면에서 다중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은 어른과 다른 나름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고픈 욕구를 갖는다. 또한 현대사회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출구를 통해 분출되는 수많은 기회와 선택에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갖는다. 이러한 욕구는 전체적으로 현재의 삶을 즐기면서 보다 나은 미래의 생활방식을 찾아가려는, 즉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의 불안을 극복하려는 본능적인 욕구일 수도 있다.

이같은 사회변화와 청소년의 욕구로 볼 때 청소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주요한 통로인 사회화과정은 기존의 가치와 이념을 일방적으로 답습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기존 사회와의 갈등과 협력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규범을 도출해 나가도록 요청하고 있다. 청소년은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지향하려는 욕구를 갖는 동시에 현재사회에서도 의미있고 보람된 생활을 요구한다. 성인들이 청소년의 삶을 유보시키려는 선의적 의도는 문제를 더욱 많이 발생시키고, 청소년과 세대간의 단절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사회변화에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비록 불리한 여건을 갖고

4) 김형식(1993), “외국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전망”,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pp. 283-286.

있지만 사회의 주요한 세력이며 특히 문화와 소비방식에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복지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에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공동의 노력과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며 동시에 현재 청소년의 삶을 이해하여 보다 나은 여건을 마련해 주고, 미래에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하도록 사회정의인 이념을 실행하여 복지를 통해 자립기반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III. 청소년복지 정체성 고찰

1. 청소년복지의 개념 논의

청소년은 아동과는 다른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발달적 과업에 있어서도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복지는 아동복지와는 다른 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하나의 사회제도이며 전문적인 영역이다.⁵⁾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틀 내에서 존재한다. 아직 이론과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는 우선 아동복지의 체계속에서 청소년복지의 지향점과 함의를 살펴 볼 수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요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Kadushin⁶⁾은 광의의 아동복지를 모든 아동들이 행복 및 사회적응을 위해 심리적·사회적·생물적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기 위한 각종의 방법이며, 협의로는 특수한 문제, 즉 요구가 있는 아동과 그의 가족에 관련된다고 본다. 또한 Friedlander⁷⁾은 아동복지는 단지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공사의 체계

5) W. E. Meyer (1985),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hild Welfare", Joan Laird and Ann Hartman,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 The Free Press, pp. 100-103.

6) A. Kadushin (1974), *Child Welfare Service*, New York : Macmillan, p. 9.

7) W. A. Friedlander and R. Z. Apte(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p. 216.

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의적 제활동이라고 한다.

이 같은 아동복지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전제로 한다.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가 없거나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가정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위탁가정이나 시설적 보호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아동의 건강과 교육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은 국가의 책임이다. 특히 Kadushin은 아동복지를 주로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역할수행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역할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리고 개인의 역할이 지역사회에 기대에 어긋났을 때 아동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⁸⁾ 이처럼 아동복지는 아동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그들의 일차적인 보호집단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의 행복과 정상적인 발달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아동과는 달리 가정의 역할과 영향이 적은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독자적으로 생산과 소비 그리고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부터 청소년복지의 개념모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대상의 분류를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적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성 대상이다. 인간의 생활주기에 입각하여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의 생활인으로서 존재하며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빈곤, 장애, 의료 문제가 있을 때 청소년은 인적 대상이 되며, 빈곤과 장애 등의 문제는 문제성 대상이 된다.⁹⁾ 특히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은 각기 처해 있는 환경과 요구가 다르다는 전제 외에 그들을 위한 인적 대상별 복지서비스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지는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 등을 주요한 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대상과는 달리 그 시기나 특성만으로도 도움을 받아야할 존재이며, 사회적 부적응과 소외의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는데 있다. 또한 성인이나 정상인과는 달리 동일한 곤경에 부딪치더라도 그 시기와 특성으로 인해 더욱 상처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데 있다.

이같은 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을 사회복지의 인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적지

8) A. Kadushin (1974), 앞의 책, pp. 10-13.

9) 송정부(1988), "사회복지의 대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복지연구회, p. 216.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그들은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과는 달리 발달주기면에서 처한 어려움이 가정 못지 않게 사회의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사회화의 주요한 과정에 있으며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가정의 지지와 더불어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이며 집단적인 사회적 지지도 요구된다.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그에 따른 서비스 내용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기를 고려한 복지적 지원의 특성은 수용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아동복지의 가정의 기능 강화를 통한 아동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편, 청소년복지의 가정의 기능 강화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아동복지에 비해 더 큰 비중을 가진다는 점에서 아동복지 속의 청소년복지로서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들을 가정적, 사회적 위험 요소로부터 잘 보호하여 청소년들이 원만히 각 성장단계의 위기를 극복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¹⁰⁾ 그러므로 청소년복지의 범위는 아동복지에서 지향하는 서비스 지원에 더하여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첨가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아동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청소년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사회적 소외와 올바른 인간관계정립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도 인적 대상에 대한 보편적 복지활동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인적 대상 또는 문제상황을 지니고 있는 문제성 대상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며 보호와 함께 사회개발적 수준에서 인식되어야 할 인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사회지향적이며 사회적 문제예방과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보완적 복지지원의 범위에서 프로그램과 사업이 체계화되고 사회보장적 기능보다는 복지활동 프로그램과 기반을 구비한 전문적인 기능적 복지활동의 방법으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라면 청소년복지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하나의 방향인 객관적인 자본주의의 사회경제법칙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복지분야이다. 이점에서 아동복지가 보호대상으로서의 아동

10) 김성이(1993),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편, p. 12.

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사업가의 주관적 판단과 실천적 체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청소년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속에 영향을 주고받는 청소년들에게 아동복지 수준에 더하여 정책의 체계적 전달과 제도적이며 유연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는 복지자세를 모색해 나가는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

2. 청소년복지의 내용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다시말해 아동복지가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대리적, 지지적, 서비스 외에 아동의 욕구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의 선별성이 아닌 보편성을 주장한 김현용¹¹⁾이 제시한 아동의 보호 *care*, 변화 *change*, 발달 및 사회화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의 네가지 욕구에 대한 대응 서비스에 준거하여 다음과 같은 청소년복지의 서비스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1) 발달 및 예방차원의 서비스

사회적으로 볼 때 청소년은 사회에서 고통을 받는 한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율배반적이며 역동적인 집단이다. 사회의 유해환경과 가정의 폭력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는 정서, 신체, 심리적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비행, 폭력 등 청소년이 일으키는 대다수의 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회심리적으로 사회적인 반향으로 과도하게 수용되어, 역사 이래 청소년문제는 세대간의 갈등과 사회불안의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청소년문제가 그들의 심리적 갈등과 청소년기에 갖는 정서적 억압 그리고 사회정의에 대한 일탈적 행위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오늘날 청소년문제는 산업사회와 생활의 불안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저항과 극도의 경쟁사회가 빚어낸 청소년들의 소외로부터 문제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가정적 관점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발달과 성장에 있어 당하거나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1) 김현용(1993), “한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개방향”,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pp. 278-285.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 및 예방차원의 서비스는 학교사회사업, 상담, 청소년 센터 등의 서비스를 재조직하고 강화하여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노동력 개발 및 보호차원의 서비스

아동기에는 가족안에서 경제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거나 생산적 능력과 동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가족으로부터 점차 심리정서적으로 분리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거나 직업적 또는 전문적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는 생산성과 사회적 책임을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경제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과 사회환경이 불충분하여 정상적인 직업교육과 생활능력소양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이 서비스는 성인과 경쟁에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만이 아니라 장차 성인이 되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계층으로의 이동수단이며, 동시에 자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는 현재 직업교육과 직업보호 등이 있지만 향후 청소년복지의 내용으로는 직접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용이하게 접근하는 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생활의 질 향상차원의 서비스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한 상태를 보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절대빈곤의 해소에 대한 관심에서 보다 높은 생활의 질을 영위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생활의 질의 기준과 범위는 상대적이며, 평가요소의 상이성과 다양성 때문에 쉽게 실체를 합의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생활의 질은 인간서비스의 맥락 속에서 사회현상에 기초한 대인관계의 산출물이다. 이것은 개인 만족의 결과로서 스스로 만족을 찾는 방법을 알고 기본적인 인간욕구를 충족하며 그리고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생활의 질에 대한 개념정의는 전문가 집단보다는 수혜자에 기초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수혜자가 자기의 생활수준과 상황을 평가하고 인지하는 것이다.¹²⁾

12) Paul Dickens(1994), *Quality and Excellence in Human Services*, New York : John Wiley &

청소년에게 생활의 질은 가정의 생활안정과 질 높은 생활 못지않게 사회에서 독특한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문화를 접촉하며 즐길 수 있는 정도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문화와 예술활동 그리고 스포츠 등 최소한의 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회관과 복지관 등이 청소년의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지속적이며 청소년들이 접근가능하도록 제시되어야 한다.

IV. 청소년복지의 방향

1. 자본주의와 복지생산성

새로운 사회복지는 복지자본주의 *welfare capitalism*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 범주인 민주, 복지 그리고 자본주의가 사회구조의 각기 상이한 부분과 맺고 있는 관련성과 역동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소비와 분배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산과 성장의 측면과 연계해서 고려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¹³⁾ 사회복지는 사회, 경제, 정치적 측면을 가진 다양한 사회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특히 경제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복지의 효율성과 생산성 문제는 어느때보다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합리적인 복지사업과 정책의 추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의 주요한 부분으로서 복지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사회사업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주요한 기제라는 엄연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같은 흐름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의 지향점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건설한 노동력으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사회적 요청과 적성 및 개성에 적합한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와 복지의 경제적 생산성과의 관계에 있어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복지대상인 청소년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청

Sons, p.184.

13) 김성이·김상균(1997),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 p. 41.

소년으로서 갖는 기본적인 불리함과 함께 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가정의 기능약화로 인해 다중적인 불평등을 갖게 된다. 특히 경제적 궁핍과 가족관계의 곤란으로 인해 갖는 현재 생활환경의 어려움보다는 양질의 경제적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비가시적인 위험에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소득가득력 *earning power*을 물질적 자본의 형태로 물려줄 수도 있지만, 인간자본의 형태로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육체적(유전적) 혹은 정신적(문화적)인 면의 상속도 있을 수 있는 바, 이는 타고난 체력, 지능 혹은 교육적 환경 등을 통해서 세대간에 이전될 수 있다.¹⁴⁾ 인간자본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을 경제가치 내지 생산력의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본으로 보고 있다. 투자를 통하여 인간에게 인간자본이 축적되면 그만큼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자본투자가 많을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것이다.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정규교육 또는 학교교육, 현장훈련, 이주, 건강, 정보 등이다.¹⁵⁾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소득수준을 결정한다는 인적 자본이론의 주장은 이후 Hunt 등에 의하여 교육불평등설로 발전되기도 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능이 교육의 성취수준을 결정하는 기본요소라는 종래의 관념을 깨고 환경적 상황이 교육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변수임을 입증한다.¹⁶⁾ 인적 자본이론은 교육과 훈련, 이주, 그리고 새로운 직업의 탐색이 중요한 투자요소라고 본다. 이것은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의 기대와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초기비용에 포함된다.¹⁷⁾

이 점에서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노동력 함양의 시기이며, 동시에 청소년에게 주어진 가정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장차의 삶의 방향이 좌우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청소년이 각자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점차 성인과 경쟁하는 데 더욱 불리한 여건을 안고 있다는 면도 고려해야 하지만 청소년복지에서는 소득의 양을 늘려주는 방법만

14) 이정우(1991),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p. 153.

15) 배무기(1989), 「노동경제학」, 경문사, p. 62.

16) J. Hunt (1961), *Intelligence and Experience*, New York : Ronald Press, 김영중(1992), 「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p. 216에서 재인용.

17) R. G. Ehrenberg and R. S. Smith (1994),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 New York :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p. 279.

큼 그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와 규범의 정립과 유익환경의 조성 등 문화적 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평생직업(노동)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인간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노동의 잠재성을 보호하고 긍정적인 사회관을 형성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있어 인간자본이론의 유용성은 현재 그들이 노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생산이 필수적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자본에 투자할 시간과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장차 양질의 노동력을 육성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공공복지서비스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간자본은 개인의 욕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청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의 인간자본요소의 향상은 사회적 힘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에게 삶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보완책으로서 접근해야 하고, 청소년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동기와 능력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것이 사회의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한 기능도 동시에 고려하여 복지의 생산성을 모색해야 한다.

2. 청소년복지의 사회문화적 역할

사회사업의 사회·문화적 측면의 의의와 역할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가치가 높은 노동력의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요청이고, 그것에 조응한 육체적인 건강과 문화적 교육의 사회화이다. 그래서 자본이 필요로 되고, 따라서 본래 자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가에 전가함으로써 사회적 공공 소비수단으로 존재·발전해 온 것이라는 점, 더구나 사회적 생산수단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으로 왜소화되고 불충분하거나 사회적으로 장치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달리 언급해 왔지만 어쨌든 그것은 개인 소득의 운동에 결부되는 광범위한 국가 지출 그룹이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사업은 자본의 정상적인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계급에게 필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부르주아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를 확실히 유지 강화하는 제요소의 하나이다.¹⁸⁾

특히 청소년복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사회안정과 국가의 복지지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노인복지와 연계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노인과 청소년의 사회통합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성

18) 孝橋正一(1991),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사업」, 중앙사회복지연구회역, 이론과 실천, p. 169.

의 효과면에서도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그 기본적인 철학은 자발적 생산성 능력의 함양이 될 것이다. 청소년복지에서 생산성을 강조하는 것은 노인복지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양을 증가하며 질적인 향상으로 귀결된다. 다시말해 청소년복지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의 부를 증가하며, 복지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자립환경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는 두가지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법적인 보호와 제도화된 장치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발달시기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사업 서비스의 수준에서 청소년들의 개별적 요구를 바람직한 사회화의 방향으로 이끌고 장차 노동시장에서 계층이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현재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청소년복지가 동일한 대상별 복지로서 아동복지에서의 아동건강과 보호와 문제아동의 선별적 서비스제공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합리성과 효율성 못지않게 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며, 복지가 경제적 이익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완해 주며 개방화된 사회에서 복지가 경제적 요소로서 기능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복지의 정체성을 찾고 나아가 사회복지의 큰 틀속에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을 명쾌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복지에 있어 사회적 변화와 복지지원의 특성에 대한 강조는 그간의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이 사회의 이상을 구현하는 전략적인 체계와 지원의 역할보다는 때로는 복지사회의 구호를 대변하는 광범위한 사회복지적 노력의 한 요소로서 또는 기능화되고 전문화된 개별과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기술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부터 비롯된다. 이에 대해 다음의 글은 청소년복지의 정체성과 방향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함의를 제시한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에 설정된 과제, 즉 청소년복지는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긍정적 생활조건 뿐만 아니라 아동과 가족에게 유익한 환경까지도 조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청소년복지분야가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광범위한 영역을 청소년복지 보다는 청소년정책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청소년복지와 청소년의 법체계는 그것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성취하기에 이미 충분한 어려움이 있는 보다 분수에 맞는 목적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¹⁹⁾

V.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복지의 정체성 모색을 위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이론적이며 학문적 구별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청소년복지의 정체성을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과 자본주의 사회변화에서 고찰하였다.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에서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보호의 연장선에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과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 개인의 권리와 성장발달의 보호와 함께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책임을 연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보다 나은 복지적 상태를 스스로 달성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생활주기를 세분화하여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몇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사람이 일생을 영위하는데 연령별 혹은 생애의 시기별로 욕구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만일 이러한 다양한 시기별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복지증진이란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이 출생해서 성장하고 성인으로서 개인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함께 가정적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과 욕구가 요구된다. 더욱이 청소년의 특성상 청소년복지는 시설복지와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건전한 성장과 질 높은 현재와 미래의 생활보장하는 기반마련은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물리적·정서적 복지기반을 통해 전체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의 요구와 문제의 특성을 파악한 탄력적이며 가변적인 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하다.

청소년복지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노동여건을 향상시켜 사회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변화의 주체로서 보다 나은 현재의 생활과 미래의 삶을 영위하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선별적인 복지지원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복지는 보호수준의 복지가 아닌 개발과 참여의 복지로부터 정체성을 모색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 Ingo Richter (1997), “사회변화와 청소년비행”, 「청소년 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국제학술회의 자료집, p. 60. 참조

참 고 문 헌

- 김성이(1993),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성이·김상균(1997),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
- 김영모(1993), “청소년복지의 전망과 과제”,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현용(1993), “한국 사회의 변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개방향”,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형식(1993), “외국 청소년복지의 현황과 전망”, 「청소년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무기(1989), 「노동경제학」, 경문사.
- 송정부(1988), “사회복지의 대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복지연구회.
- 이정우(1991),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장인협·오정수(1996),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Ehrenberg. R. G and Simith. R. S.(1994), *Modern Labor Economics : Theory and Public Policy*, New York :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 Friedlander, W. A and Apte, R. Z.(1961),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 Hunt. J.(1961), *Intelligence and Experience*, New York : Ronald Press; 김영종(1992), 「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 Ingo Richter(1997), “사회변화와 청소년비행”, 「청소년 폭력」, 한국청소년개발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Kadushin, A.(1980),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Meyer. W. E(1985),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Child Welfare”, in Laird, J. and Hartman, A., *Handbook of Child Welfare*, New York : The Free Press.
- Paul Dickens(1994), *Quality and Excellence in Human Services*,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孝橋正一(1991), 중앙사회복지연구회역, 「현대 자본주의와 사회사업」, 이론과 실천.